

소설 심사평*

심영의, 현기영, 임철우

· <예심> 심영의

: 2012 5·18문학작품 공모 소설부문 응모 작품은 중·단편 포함 모두 60편이었다. 모든 것이 교환가치로만 환원되는 이 척박한 시대에 문학을 하겠다는 그 열정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반가웠다. 나는 우선 응모 작품들의 제목을 일별했다.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다.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소설 작품다운 제목을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점에 무신경했다. 다음으로는, 제대로 된 소설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폈다. 어떤 종류의 글이든 정확한 문장 표현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매개로 삶의 구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문학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작품들이, 아니 상당수의 글쓴이들이 기본적인 문장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를 적잖이 실망케 했다. 적절하지 못한 낱말, 띄어쓰기의 잦은 오류, 의미가 명료하지 못한 문장, 문단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기본이 덜 된,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읽고 문장에 대한 훈련을 쌓아야 할 작품들을 우선 제외시켰다. 이런 경우 예외 없이 서너 편 혹은 다섯 편이나 되는 작품을 보내왔다. 습작품을 모두 보내 그 중 어느 하나가 요행으로 선자의 눈의 들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생각 대신, 가장 애정이 많은 작품, 가장 절실하게 쓴 작품 하나를 투고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임을 알려주고 싶다. 그 다음으로는, 글쓴이의 체험을 지루하게 나열하고 있는 작품들, 체험이 곧 소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을 제외시켰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곧,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운문을 쓰느냐 아니면 산문을 쓰느냐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작품들을 읽어가는 내내 거듭 묻곤 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토리와 플롯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소설을 쓰는 이에게 요구되지 않겠는가. 또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주제를 폭넓게 허용한다 치더라도 5월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문학상일진데, 그 체험의 적실성이 5월의 의

미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실마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5월 문학에서 더 이상의 다큐멘터리는 아무런 의미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어반복의 유사성 장애 때문에 5월 문학은 그 유효성이 진즉에 끝나버렸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점을 아직 모른다는 건, 그러니까 기왕의 5월 소설들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서야 그러한 작품들의 성과와 한계를 뛰어 넘는 일은 요원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본심에 올릴 작품을 세어보니 애초에 정한 15편은커녕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다른 건 단념하되 그나마 문장의 밀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가려 본심에 넘기기로 했다. 그럼에도 나는 7편만을 본심에 올리기로 했다. 「하얀 풍선」, 「봄이 오면」, 「점용의 세월」, 「새벽의 혼」, 「최면치료사」, 「코미디 : 불안의 맛」, 「돼지저금통」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예심통과작>

하얀 풍선	새벽의 혼	최면치료사
봄이 오면	코미디(Comedy) : 불안의 맛	돼지저금통
점용의 세월		

· <본심> 현기영 · 임철우

: 본심에 오른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5·18문학상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5·18을 직접 대상화하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성의 옹호, 자유와 생명을 향한 목소리와 시야가 담긴, 즉 문학의 본질적인 물음들이 곧 5월정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싶다. 최종까지 남은 두 작품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각기 장점을 지녔다. <코미디:불안의 맛>은 모처럼 5월을 바라보는 신선하면서도 지적인 시각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돼지’로 상징되는 초반부의 에피소드들이 소설의 전체적 틀 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당선작 <최면치료사>는 형식·주제 양면에서 매우 세련된 수작이다.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시선과 문장, 어두운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솜씨가 돋보인다. 감당키 힘든 슬픔과 고통을 가슴속에서 녹여 내어, 그것을 나지막하면서도 강렬한 희망의 언어로 갈무리해 낸 작가의 따뜻하고 깊은 심성이 5·18문학상의 정신에도 충분히 값한다고 보여져, 흔쾌히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선정작> 최면치료사 / 박상혁 작